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09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장 김혜정 ☎440-2761 • 담당자 김선희 ☎440-276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스스로 코로나19 자체점검 실시 나선다.

- 인천시,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로 코로나 19 극복 결의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선제적 방역점검 체계 가동 -

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일 코로나19 자율지도 강화를 위한 결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식품위생단체의 자율지도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날 결의간담회에는 건강체육국장 등 시 관계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유흥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등 식품위생단체의 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관리시설(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자율지도를 통한 코로나 극복을 결의했으며, 그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공유했다.

정협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일상회복 전환으로 여러 소모임과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위생,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도 위생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 방역점검 체계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